

# 호남석유화학 주식 사면 재미본다?

메리츠증권, 중국 성수기 대비 매수추천 ... 정유는 중장기 호황 악재

메리츠증권은 2005년 1월 이후 중국의 재고 확보로 가격상승이 기대된다고 석유화학업종에 관심을 가질 것을 12월28일 권고했다.

유영국 애널리스트는 “정유업종 주식은 계절적 성수기 및 중장기 정유업 호황 전망에 따른 영업실적 호전 기대감 영향으로 강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석유화학은 비수기에 중국의 구매 지연으로 가격의 약세국면이 지속되면서 횡보등락 양상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석유화학은 중국이 춘절 이후 상반기 성수기에 대비한 재고 확보에 나서면 가격의 상승반전이 예상돼 주가 선반영이 이루어진 정유보다는 석유화학 업종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005년 중국의 대규모 Polyester 증설 및 세계 섬유쿼터 해제 영향으로 주요 화섬원료인 EG(Ethylene Glycol)의 수혜가 예상된다면서 호남석유화학(목표주가 8만5000원 매수)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했다.

<화학저널 2004/12/29>